‘베토벤 바이러스’ 인기 타고 대중화 바람

가을, 클래식 선율에 빠져보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이 일반인들에게 다가가는 데 영화나 드라마 등 대중문화의 힘은 세다. 최근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이하 베바)가 인기를 얻으면서 클래식 대중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일단 음반 판매량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다. ‘베바’는 환희 등 인기가수들이 참여한 가요음반과 클래식 음악을 담은 두장의 OST음반을 냈다. 10월 초에 발매된 클래식 음반(2CD)에는 배우 송옥숙이 연주한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 등 모두 20곡이 실려 있다.

국내 음반 판매 집계 사이트인 한터차트에 따르면 ‘베바’ OST 클래식 버전은 발매 2주만에 6천장 넘게 팔리며 드라마 OST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 예스24 클래식 음반 순위에서도 ‘베바’ 클래식 버전은 최근 신보를 발표한 조수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다메 칸타빌레’ 음반 역시 5위를 기록중이다.

또 드라마에 등장했던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이 연주한 ‘쟈클린의 눈물’이 담긴 앨범 ‘눈물’과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의 앨범도 덩달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베바’ 음악을 활용한 콘서트도 기획중이다. 제작진은 드라마 종영 후 ‘베바’에 삽입됐던 클래식 음악으로 연주회를 준비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열려 성공을 거뒀던 ‘칸타빌레 콘서트’는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 수록곡으로 기획한 음악회였다 이 연주회는 세종문화회관 상반기 유료 객석 점유율(96%) 1위에 오르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었다. 드라마에서 감질나게 들었던 ‘전곡’을 듣고 싶어하는 클래식 초보 팬들이 몰린 덕분이었다.

모처럼 불기 시작한 클래식 바람이지만, 광주에서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어 아쉽다. 일부에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매달 한 차례씩 무료로 열고 있는 ‘화요음악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시향이 의욕을 갖고 시작한 화요음악회의 경우 매회 참여 인원이 50~60명에 그치는 등 관객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상태.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다소 식상한 프로그램과 공연장까지 관객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 특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음악인은 “민간 단체들은 여건이 어렵지만, 시향이 클래식 붐을 주도하고 있는 ‘베바’를 활용한 레퍼토리로 지역에도 클래식 바람을 일으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베토벤 교향곡’을 치면 가장 먼저 뜨는 작품은 어떤 걸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5번 ‘운명’, 6번 ‘전원’, 9번 ‘합창’이 아닌, 교향곡 7번이다. 다소 의외다 싶은 결과는 젊은층에게 많은 인기를 모았던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 때문이다.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연주했던 ‘교향곡 7번’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다.
>
>
>
> #‘피아니스트 김정원씨〈사진〉는 2006년 영화 ‘호로비츠를 위하여’에 출연했었다. 영화 출연이 ‘클래식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김 씨의 마음처럼 영화가 크게 대중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김씨가 주인공 소년의 성인역으로 출연, 연주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2번’은 많은 사랑을 받았다.

‘베바 OST’·클래식 음반 인기 폭발
광주시향 화요음악회 바람몰이 기대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가 인기를 끌면서 클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한장면.

■ 클래식 음악 영화

‘파리넬리’ ‘호로비츠를 위하여’…
주옥같은 선율 잊을수 없는 감동

게리 올드만이 주인공으로 분한 ‘카핑 베토벤’에서는 대작 ‘합창’의 초연 장면이 격정적으로 펼쳐지며 ‘피아노 소나타 5번’, ‘피아노 소나타 32번’ 등 주옥같은 음악이 흐른다.

꿈을 잃은 피아노 교사와 천재 소년의 우정을 그린 엄정화 주연의 ‘호로비츠를 위하여’에서는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여죄수와 그녀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그린 ‘포 미닛’에는 슈베르트의 즉흥곡과 모차르트의 피아노곡들이 귀를 사로잡는다.

또 ‘샤인’은 영화 전편에 흐르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과 쇼팽의 ‘빗방울전주곡’ 등이 감동을 전하며 올해 OST가 새로 발매된 ‘파리넬리’에는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 등이 실려 있다. 그밖에 오는 11월 개봉 예정인 ‘피아노, 솔로’에서도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

정광희 작 ‘인생’

호남대 출신 ‘점하나회’전

24일~11월 6일 일곡갤러리

호남대 미술학과 출신 서예가들의 모임인 ‘점하나회’(회장 정광희)가 24~11월6일까지 광주시 북구 일곡갤러리에서 3번째 단체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김명숙, 김미옥, 김정의, 김진, 박숙자, 박영숙, 성철제, 임현정, 전상준, 최경태, 최영호, 홍현미씨 등이 참여해 다양한 글씨체의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글자를 시각화 시키거나, 그림을 곁들이는 등 전통 서예 기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 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문재평씨는 한자 우물 ‘정(井)’자 안에 한글로 ‘개구리’를 써 넣어 ‘우물 속 개구리’를 형상화시킨 이색 작품을 전시하고, 최영호씨는 단아한 한글 서체를 출품했다. 문의 062-510-163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설제·오영정씨 中 송장미술제 참여

사진작가 이설제씨와 섬유 설치작가 오영정씨가 오는 25일~11월25일까지 중국 베이징 798예술지구에서 열리는 송장(宋庄)국제미술제에 참여한다.

이씨는 도시의 각박한 풍경과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도시민의 삶을 디지털 카메라에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 오씨는 천과 실로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입체작품을 전시한다.

베이징 798 예술지구는 과거 무기 생산 공장을 개조해 300여 개의 갤러리가 들어서 있는 중국 대표적인 문화 공간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설제 작 ‘스며들다’

문순태 ‘생오지 문학제’
25일 담양 문학의 집

소설가 문순태씨의 창작공간인 담양 ‘문학의 집 생오지’에서 오는 25일 오후 3시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생오지 문학제’가 펼쳐진다.

‘제3회 시와 소리의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학제에서는 시 낭송 뿐만 아니라 판소리, 대금독주, 가야금 병창, 민요, 포크송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준비됐다.

송수권·이지담·강성남 시인이 국악 반주에 맞춰 자작시 낭송을 선보이며, 홍영씨는 대금 독주를, 황연수와 선영숙씨가 각각 판소리와 가야금 산조를 들려준다. /이은미기자 emlee@

이형석 바이올린 독주회

25일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

이형석(전남대 음악학과 교수·사진) 바이올린 독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 예술대 연주홀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장조’와 브람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2번과 3번’이다. 브람스가 남긴 3곡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일명 ‘현상의 노래 소나타’라고 불리는 ‘2번 A장조’는 서정적인 바탕 아래 힘차고 늠름하며 여유로운 느낌이 가득한 곡이다. 또 ‘3번 D단조’는 친한 친구의 죽음과 자신의 불행한 시절을 나타낸 우울한 감성이 드러난 작품이다.

서울대와 벨기에 브뤼셀 왕립음악원을 졸업한 이 씨는 서울시향, 국립교향악단을 거쳐 광주시향 악장을 역임했으며 금호사중주단으로도 활동했다.

피아노 반주는 전남대 음악학과를 거쳐 독일 퀠른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조현영씨가 맡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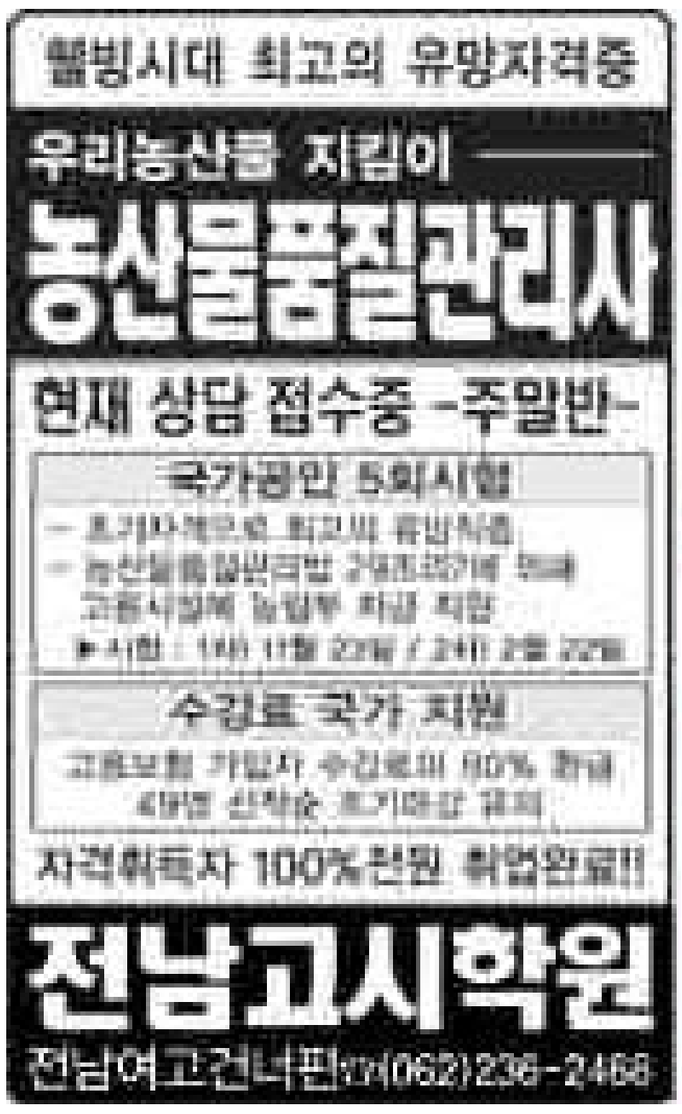
날으는 코끼리 프로젝트

광주비엔날레재단 25일~11월9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25일~11월9일까지 비엔날레 전시관 앞 테마공원에서 시민프로그램인 ‘날으는 코끼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관람객을 위해 마련된 ‘날으는 코끼리…’는 크게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이 테마 광장의 미니북 코너에서 자신의 일기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함께 하고픈 나만의 미니북’이다. 모든 재료는 재단에서 제공하고, 완성된 책은 테마광장에 전시된다.

또 ‘바람나무’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은 메모지를 전시하는 행사이다. 올해 광주비엔날레의 ‘연례보고’ 컨셉트를 패러디 한 ‘월례보고-두 달 동안의 전시’는 관람들이 남긴 그림이나 픽토그램(pictogram·상징화 된 그림 문자)을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같은 기간 테마공원에서는 퓨전재즈 밴드, 인도 전통 춤, 밸리 댄스 등의 공연도 곁들어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